

2014학년도 송실대학교 수시 신입학
논술고사 문제지 (1교시)
 [인문대학, 법과대학, 사회과학대학]

지원학과(부)		수험번호		성명	
---------	--	------	--	----	--

※ 주의사항(문제 1-2번 공통)

- ① 답안지에 제목과 소제목을 달지 말 것.
- ② 답안지에 자신을 드러내는 표현을 쓰지 말 것.
- ③ 제시문의 문장을 직접 인용할 경우에는 인용 표시(“ ”)를 할 것.
- ④ 제시문의 문장을 직접 인용하는 경우 외에는 본문의 일부를 그대로 옮겨 쓰지 말 것.
- ⑤ **검정색 필기구(연필, 볼펜 또는 사인펜)**만을 사용하여 답안을 작성할 것(그 이외 색필기구는 부정행위에 해당).

문제 1 제시문 (가)에서 설명하는 변화의 내용을 요약한 후 이를 토대로 제시문 (나)와 (다)를 비교·평가하시오.

(1000 ± 100자, 60점)

(가) 민족기억이라는 개념은 아주 최근에 나타난 현상이다. 과거에는 하나의 민족사와 사적(私的)인 성격을 지닌 여러 집단기억들이 있었다. 민족사는 그 구조와 기능에서 대체로 신화적이고 그 내부 구성요소들 사이에 분열이 있더라도 하나로 통일된 역사이며, 주로 학교에서 배웠던 역사이다. 이 민족사는, 그것의 기본골격, 연대기, 불가피한 역사적 전환점, 널리 인정된 인물들, 사건들의 서열 따위에서 상당히 동질적이어서 초등학교에서 대학교까지 학습이 단계별로 이어지고, 학술서적에서 초보자용 서적이 서로 상통되는 내용을 담고 있었으며, 따라서 사회 안으로 완전히 침투해 들어갈 수 있었다. 그리고 다른 한편에는 사적 기억들, 즉 가족과 집단에 의해 전승되고, 개인의 경험과 공동체의 관습을 그 안에 담고 있고, 지역, 지방, 종교, 직업, 관습 등의 전통들과 결부되어 있는 기억들, 즉 그간 역사학이 무시해온 경험들이 있었다. 그것은 개인적 경험과 주변에서 나온 기억들이었다. 그리고 한 민족의 집단적 정체성이 구성되었던 것은 민족사와 사적 기억들이라는 이 이중장치(二重裝置)를 통해서였다. 여기서 국가는 전체의 균형을 유지하고 모두에게 국가의 정책과 법률을 수용하도록 하였고, 반면에 개인들은 사회적 유대를 구성하는 이 집단적 신조에 개입하고 가담하는 정도와 방식을 저울질하였다. 그러나 이제 이 이중장치의 구조적 안정성이 와해되었다. 20세기에 들어와 엄청난 전쟁들과 사회적·문화적 혁명을 거치는 가운데 이전의 민족사는 해체되고 그 대신 민족기억이 대두된 것이다.

여기에는 철저히 자기중심적인 개인주의적 가치관의 승리와 더불어 오래된 유형의 인간적·사회적 관계들이 해체되고, 그에 따라 세대 간의 연결고리, 즉 과거와 현재 사이의 연결고리가 끊어지게 되었다는 저간의 사정이 있다. 그 결과 기억과 역사는 동의어이기 커녕 정반대라는 깨달음이 생겨났다. 전통적인 의례를 매일매일 준수하는 유대인들은 ‘기억의 민족’이지 역사의 민족이 아니라는 사실, 즉 그들이 근대세계에 개방되면서 역사가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게 될 때까지 역사에 관심이 없었다는 사실이 이를 단적으로 증명한다. 기억은 삶이고, 언제나 살아있는 집단에 의해 생겨나고 그런 이유로 영원히 진화되어가며, 기억력과 건망증의 변증법에 노출되어 있고, 의식하지 못한 채 끊임없이 왜곡되며, 활용되거나 조작되기 쉽고, 오랫동안 잠자고 있다가 갑자기 회복되기도 한다. 반면 역사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것에 관한 미완성의 그리고 언제나 새로운 문제를 제기하는 재구성이다. 기억이 언제나 현재 일어나고 있는 현상이라면 역사는 과거에 대한 하나의 표상이다. 또 기억은 기억이 결속시킨 집단으로부터 솟아나고, 그래서 모리스 알브박스의 말처럼, 집단들이 있는 것만큼 많은 기억들이 존재하고, 본질적으로 다수이면서 파급적이고, 집단적이고 복수(複數)적이면서 동시에 개별적이라고 할 수 있다. 반대로 역사는 모두에게 속하면서 아무에게도 속하지 않으며, 그래서 역사에는 보편적인 사명이 부과된다. 기억은 구체적인 것, 공간, 행동거지, 이미지, 물체 속에 뿌리를 내린다. 역사는 오로지 시간적 연속, 사물의 진화와 관계에만 몰두한다. 기억은 하나의 절대자이고 역사는 오직 상대적인 것만을 중시한다.

역사(학)의 중심부에는 자생적 기억을 파괴하는 하나의 비판주의(criticism)가 작동한다. 기억은 역사에게 언제나 의심스러운 존재이고, 역사의 진짜 사명은 기억을 파괴하고 격퇴하는 것이다. 역사는 경험된 과거의 불법화(不法化)하기인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역사에 근거한 민족’은 자신의 이야기를 하고 그 이미지를 유지하고 스펙터클을 상연하고 자신의 과거를 기념하기 위해 정해진 장소들, 일정한 집단들, 정해진 날짜들, 지정된 기념물들, 의례화된 의식(儀式)들에 의존해왔다는 사실이 눈에 띈다. 다시 말해 역사에 근거한 민족은 과거의 존재를 어떤 집중화된 표상체계 안에 가두었으며 그 밖의 것들에 대해서는 관심을 두지 않았다. 반면 지금 대두하고 있는 ‘기억에 근거한 민족’은 정반대로 행한다. 기억에 근거한 민족은 모든 공간에 자신의 정체성이 자리 잡을 수 있는 가능성을 부여하며, 현재의 모든 사물들에 이전(以前) 시간의 차원을 부여한다. 한때 공간의 축(軸)에 따라 무심하게 펼쳐져 있다고 여겨지던 것들이 이제는 시간의 축에 따라 이해된다. 돌들과 담벼락들이 생명을 얻고, 장소가 활력을 되찾았으며, 경관(景觀)이 생기를 얻었다. 암묵적인 것은

이제 명시적인 것으로의 지위를 요구하고, 사적인 것은 공적인 것이 되고자 하며, 신성한 것은 세속화되고, 국지적인 것은 민족적인 것으로서의 지위를 요구한다. 모든 것이 자신의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모두가 그럴 권리가 있다. 그 결과 역사에 근거한 민족을 가르치던 전통적 경로와 방식들은 이제 대규모로 퇴조하고, 거기에 입문할 수 있는 특권적 장소들(학교, 가족, 박물관, 기념물)의 권위는 실추되고 있다. 아울러 그러한 제도들이 떠맡았던 일들이 공공의 영역으로 넘어가고 그 일들은 이제 매스미디어나 관광 사업에 의해 장악되고 있다. 국왕의 순회, 직인(職人)의 일주, 수확여행과 같은 일주의 전통을 현대화한 자전거 전국순회경기인 ‘투르 드 프랑스’가 프랑스의 경관은 물론 공간과 시간에 뿌리박고 있는 문화유산들을 보여줌으로써, 프랑스가 기억의 땅이자 위대한 업적의 땅임을 사람들에게 각인시키는 민족적 제도로 정착된 것은 이런 예들 가운데 하나에 불과하다.

(나) 17세기가 경과하는 동안 네덜란드인들은 모든 차원에서 그들의 민족이념을 시각적으로 구현해냈다. 지리적으로 그들의 민족이념은 그들에게 친숙한 경관, 즉 아주 토착적인 특징들—평평한 땅과 넓은 조망, 제방들과 풍차들, 숲과 폭포들, 바다 경치와 전함들, 회반죽을 바른 교회들, 박공지붕의 건물들과 운하들—을 지닌 시적(詩的) 공간들을 묘사한 일련의 그림들을 통해 표현되었다. 역사적으로도 네덜란드의 주민들은 시각예술을 통해 그들의 내적 분열에도 불구하고, 약속된 땅을 향해 출애굽을 감행한 고대 이스라엘 백성이 겪은 역경을 지닌 민족이라는 널리 인정된 성서적 비유(比喩)와 더불어 먼 과거에 대한 하나의 내러티브(이야기)—바타비아 신화와 로마에 대항한 그들의 영예로운 반란—를 공유하게 되었다. 무엇보다도 그들은 특히 나르던, 알크마르, 할렘, 라이덴의 포위공격에서, 영웅주의와 인고(忍苦)의 도덕으로 합스부르크의 압제와 스페인의 격노에 맞서 저항한 근자의 역사를 공유(共有)하였는데, 이는 다양한 인쇄물, 팸플릿, 그리고 나중에는 역사책 안에 그림으로 묘사되었다. 이것들은 민족적인 기억의 공유에 대한 점증하는 필요성을 입증하였고, 그런 필요성은 무엇보다도 (모세에 비유된) 오렌지 공(公) 윌리엄의 장례식과 델프트에 있는 그의 무덤에 뚜렷하게 표현되었다. 동시에 그것들은 외부의 압제자에 저항한 선민(選民)이라는 새로운 네덜란드 인민의 관념을 그림으로 설명하였고 또 세상에 널리 알렸는데, 네덜란드 인민은, 아직은 내부의 갈등으로 쪼개져 있었지만, 그림에도 불구하고 네덜란드 공화국 안에서 새로운 정치적 주형틀을 찾고 있었다.

요컨대 17세기 네덜란드의 온갖 그림들은 여러 가지 면에서 그 후의 서유럽의 중심적인 예술적 테마와 모티프들, 특히 민족정체성 의식에 속한 예술적 테마와 모티프의 선구자였다. 우리는 예술사적으로 네덜란드 이외의 다른 어느 곳에서도 민족공동체의 이처럼 풍부하고 다양한 시각적 창조를 찾아볼 수 없는 바, 그것은 지방적인 특권과 지역적·시민적 전통들을 열렬히 수호하고, 80년의 긴 영웅적인 전쟁과 그것의 성공적인 결과의 결실들을 의식적으로 향유하는 가운데 주조(鑄造)되었다. 그리고 제후, 귀족, 성직자들을 후견인으로 삼지 않은 상태에서, 그 그림들을 사고팔았던 것은 지배 엘리트들만이 아니라 중간 및 중하위 계층이었다.

(다) 1938년에 뮌헨을 방문했던 사람이면 미술에 대한 국가사회당의 태도를 잘 보여주는 두 개의 미술관을 보았을 것이다. 엄청난 비용을 들여 건립한 거대한 첫 번째 미술관은 정부가 공식적으로 장려하는 예술작품들을 전시했다. 거기에는 번쩍이는 갑옷을 입은 히틀러의 여러 초상화, 실물보다 크게 그린 나치 지도자들의 초상화, 가슴이 풍만한 농촌 처녀들과 영웅적인 노동자들이 불확실한 미래를 향하여 전진하는 모습 등과 같은 독일 청년들을 소재로 한 그림과 조각들이 있었다. 모든 것이 정적이고 얼어붙어 있고 경직된 모습이었다. 유독 그 수가 많았던 전투장면에는 포화와 수류탄이 폭발하는 와중에 적의 진지를 향해 돌진하는 무표정한 독일병사들이 그려져 있었다. 운이 나쁜 그들의 적들은 두드러진 특징이 없이 그려져 도대체 이들이 프랑스군인지, 영국군인지, 러시아군인지, 심지어 중국군인지 구별하는 것조차 불가능하였다. 미술관의 여기저기에는 고대 게르만 신들의 대리석 신상이 놓여있었다.

이 미술관에서 멀지 않은 곳에 ‘부패한’ 예술에 헌정된 두 번째 미술관이 있었다. 커다란 현수막이 국가사회당이 공식적으로 불량하다고 선포한 예술작품들을 인민대중이 관람하도록 안내하고 있었다. 대여섯 개의 전시실에 코코슈카, 프란츠 마르크, 게오르규 그로츠, 클레, 그리고 다수 독일 표현주의 작가들의 작품들을 포함하는 현대미술의 최고 걸작들이 모여 있었다. 이 작품들은 대중의 경멸을 불러일으키고자 전시되었다. 그러나 주최 측의 의도대로 일이 풀리지 않았다.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환희와 경탄을 금치 못하며 이 걸작들을 감상했던 것이다. 그러자 주최 측은 그림 감상을 훼방하기 위해 약 스무 명의 돌격대원들을 불러들였다. 돌격대원들은 권총으로 무장한 채 그림들에 감탄하는 기색을 보이는 관람객에게 눈빛으로 으름장 농기를 즐기면서, 육중한 군화발 소리를 내며 전시실을 따라 행진했다. 어떤 그림 하나가 다소 지나치게 열광적인 반응을 얻으면 돌격대원 한 명이 그 그림 앞에 버티고 서는 경우가 이따금씩 발생했다. 체포가 자행되기도 했다. 한 전시실에서 서너 명의 사람들이 무리를 지어 어떤 그림에 감탄하면, 느닷없이 서너 명의 돌격대원들이 그 그림 쪽으로 뛰어가는 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그런 무리들은 반드시 해산되어야 했다. 국가사회당 공식예술작품은 반드시 옹호되어야 하는 반면, 비록 공식적으로 전시되었다 하더라도 ‘부패한’ 예술작품을 즐기는 행위는 용납될 수 없었다.

문제 2 제시문 (가)에 근거하여 제시문 (나)에서 설명하는 길가메시 왕의 선택과 결정을 논하시오.

(800 ± 80자, 40점)

(가) 강압(coercion)은 국가 간 관계에서 군사력 사용의 가능성이나 다른 수단을 통해 상대방의 행동 변화를 만들어내는 전략 중의 하나이다. 강압은 폭력(brute force)과 구분되는 개념으로 이해하면 가장 적절하다. 폭력은 사용되어야만 실효를 발휘하지만, 이와 달리 강압은 피해를 입힐 수 있는 힘을 유보한 상태에서 그 목적을 달성해야 가장 큰 효과를 거둘 수 있다. 현실에서 강압과 폭력의 구분은 모호하지만, 그 차별화를 포기할 경우 항복을 포함한 모든 국가의 행위가 스스로의 선택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국제 정치의 프로세스를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강압의 독자적 개념화는 중요하다.

강압은 그 목적에 따라 억지(deterrence)와 강제(compellence)로 나눌 수 있다. 억지란 상대방이 특정한 행동을 시작하지 못하도록 설득하는 것(dissuasion)이고, 강제란 상대방이 이미 하고 있는 행동을 중지시켜 원상회복시키거나 상대방의 의지에 반하여 특정한 행동을 시작하도록 설득하는 것(persuasion)을 의미한다. 강제의 경우 후자 즉 상대방의 의지에 반해 어떤 행동을 시작하도록 강요하는 것을 원상회복을 위한 강제와 구분하여 양보라 하기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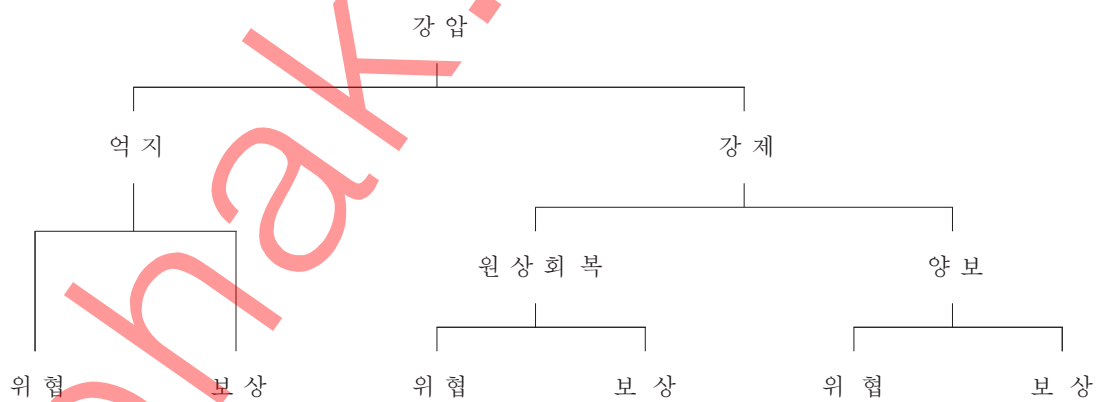
억지와 강제의 수단으로는 위협(threat)과 보상(promise)이 사용된다. 타인의 기대에 영향을 미쳐 그의 행동을 바꾸기 위해 제공되는 미래 행동에의 약속을 공약(commitment)이라고 할 때, 위협은 요구에 부응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가하겠다는 공약이고, 보상은 요구에 부응했을 경우 이익을 제공하겠다는 공약이다.

억지의 경우는 상대방이 순응하지 않을 때 사용할 나의 수단을 제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대방이 요구에 순응할 때에는 어떤 구체적인 이익을 제공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억지의 상황에서 상대방의 순응은 현상유지를 의미하는 경우가 많고, 이 경우 현상유지를 위해 보상을 제공한다면 유화(appeasement)나 굴복으로 보일 것이다. 따라서 억지의 경우는 보상이라는 수단보다는 위협이라는 수단 즉 위협을 통한 억지라는 쪽이 훨씬 자연스럽다.

반면 강제의 경우는 보상의 역할이 보다 중요하다. 위협에 의한 강제에 순응하는 것은 명백한 굴복으로 여겨지기 쉽기 때문에 주권국가로서는 이를 받아들이기가 어렵다. 특히 원상회복을 위한 강제가 아니고 상대방의 양보를 요구하는 강제가 위협이라는 수단을 동원할 경우 이를 공갈(blackmail)이라 하는데, 공갈은 수탈이나 무력충돌로 곧잘 이어져 폭력과 구분이 모호해지기도 한다.

상대방의 행동을 요구하는 강제의 경우에는 이를 강요하기 위한 명분과 보상이 제공될 때 성공 가능성이 훨씬 높아진다. 보상에 의한 강제의 경우 상대국의 지도자가 양보의 대가를 받음으로 해서 항복으로 인해 야기될 수 있는 정치적 손실과 비용을 감소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저항의 대가를 높이는 대신 순응의 가치를 증대시킴으로써 상대 지도자는 패배에도 불구하고 상호 승리를 주장할 수 있는 근거를 갖게 된다. 이러한 점에서 보상에 의한 강제는 합의나 거래의 상황과 유사한 결과를 낳게 되므로 이를 특히 구분하여 유도(inducement)라고 부르기도 한다.

이상의 논의를 요약하면 다음 그림과 같다.



(나) 아주 먼 옛날에 통치자는 원격지에서 물자를 확보하기 위해 군사 원정을 조직했다. 예컨대 우루크의 왕 길가메시(기원전 3천 년경)는 머나먼 곳에 있는 삼나무 숲에서 목재를 얻으려고 여행을 준비했다. 그러나 희소물자를 얻기 위한 약탈 원정은 위험부담이 큰 사업이었다. 전하는 바에 따르면, 길가메시는 삼나무 숲에서 돌아온 후 친구이자 동료인 엔키두를 잃었다. 다음 대목이 보여주듯이 엔키두의 죽음은 그가 적과의 거래를 거부한 데 대한 일종의 인과응보였다.

그리하여 (삼나무 숲의 주인) 훔바바는 항복했다.

훔바바는 길가메시에게 말했다.

“나를 풀어주게, 길가메시여

그러면 그대는 나의 주인이 되고 나는 그대의 종이 되리니.
그리고 나는 내 산에서 기른 나무들을 베어 그대의 집을 지으리.”
그러나 엔키두는 길가메시에게 말했다.
“훙바바의 말에 귀 기울이지 말게,
훙바바를 살려두어서는 안 되네.” (『길가메시 서사시』 중에서)

그래서 두 영웅은 훙바바를 죽이고 우루크로 개선했다. 이야기에 분명히 나와 있지 않지만 아마도 전리품으로 삼나무 목재를 가지고 돌아왔을 것이다.

훙바바를 살해한다는 결정은 매우 불안정한 역학관계를 반영한 것이었다. 길가메시는 삼나무 숲에서 오래 머물 수가 없었다. 이런 원격지에 그는 아주 잠시만, 그것도 간신히 적보다 우월한 군사력을 가질 수 있을 뿐이었다. 엔키두와 길가메시가 훙바바를 죽이지 않았더라면 원정군이 철수하자마자 훙바바는 이방인의 요구를 거부할 수 있을 정도로 권력을 회복했을 것이다. 분명한 것은 길가메시가 훙바바의 항복을 받아들였든 거부했든, 이런 실력 행사로는 우루크에 충분한 목재를 공급할 수 없었을 것이라는 점이다.

통상적인 명령구조 내에서 원격지로부터 희소자원을 입수하기 위해서는 이보다 훨씬 신뢰할 만한 방법이 필요했다. 이 쪽에서도 그 자원과 맞바꿀 어떤 물품을 보내겠다고 제시하는 것, 즉 약탈이 아니라 교역이었다.

<끝>